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4월 5일(금)
--(음력 2월 27일)--
Пятница
5 апреля 2024 г.
№ 13 (1208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이틀에 걸쳐 3월 말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할린 주내 문화예술교육기관 소속 무용단 경연대회 '사할린 프리스타일'이 진행되었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네벨스크, 흠스크,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비코브, 티몹스코예에서 22개 무용단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2등을 차지한 <에트노스>예술학교의 '무궁화'무용단(담당 최경순 교사).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대조국전쟁 참전자들에게 7만5천 루블리 지급 예정

전승절을 맞아 일시금이 지급된다. 레닌그라드 봉쇄기의 주민들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던 주민에게는 5만 루블리를 지급하고,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전쟁시기의 아이들'에게는 5천 루블리를 지급하는 가운데 사할린 주민 1만3천여 명 이상에게 모든 지원책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지역 예산에서 8천200만 루블리를 배정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포베다(승리)'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참전용사는 승리의 날의 주요 주인공들이다. 우리는 그들 각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의료혜택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전쟁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과 참전용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지사가 말했다.

사할린주에는 전쟁 참전용사들, 후방전선참전자, 포로수용소 수감자 등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272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올가 오를로와 장관은 "우리의 영웅들을 위한 월별, 분기별, 연간 보조금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 지원으로서 치과 보철, 요양 및 휴양치료,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며,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참전용사들에게는 모든 의료문제에 따른 개별적 건강도우미가 배정되며, 필요한 경우 자택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입원실에는 참전용사를 위한 별도의 병실이 배치돼 있다. 또한 의약품 제공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들에게도 이런 특혜가 적용된다.

인도 기업, 사할린에 개인 위생용품 생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인도의 우수기업 중 하나인 'PSK 바이오테크 프라이빗 리미티드(Biotech Private Limited)'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1월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의료 소모품과 개인 위생용품 지역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사할린 주지사와 사할린 대표단이 뉴델리 출장 중에 시작된 협력의 연장선으로 서면계약이 체결되었다. 양측이 회담하는 가운데 사할린 지역과 인도 제약회사 간의 직접적인 협력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실행의 첫 단계는 사할린 지역에서 개인 위생용품과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향후 인도 기업은 사할린에서 본격적인 의약품 생산 가동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회담에서 우리는 협력의 중요한 측면을 논의하며, 현재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다. 사할린 주는 인적자원과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극동지역과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인도의 의약품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항구 및 항공운송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본질적으로 합치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협력을 위한 폭넓은 전망을 바라보고, 상호이익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들을 위한 5단계>연방 프로그램에서 대상 수상

러시아 건설부 이레크 파이줄린 장관이 <도시들을 위한 5단계> 연방 프로그램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도시민 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들이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혁신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다.

"도시의 탁월한 성과와 과감한 정책, 피지배층의 최대한 참여를 끌어내고, 도시 시민들이 특히 가장 젊은 도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바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이다."라고 전해졌다.

러시아 연방 주택공공사업 및 건설부 이레크 파이줄린 장관은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사할린주 정부 대표이사 알렉산드르 레메조브에게 상을 수여했다.

사할린에서 '불법 이주민' 조치 진행

사할린주에서 '불법 이주민' 비상점검 조치가 마무리되었다. 조사 중에 외국인 거주지, 상업적 시설, 건설현장, 주택공공사업 업체, 일반 식당 등 126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경찰조사 결과 140건의 이주민법 행정위반이 적발되었는데 그중 58건은 입국, 출국, 체류 및 환승 법률 위반이었고, 49건은 근로활동 등록절차 위반, 30건은 러시아 연방 체류규정 위반으로 이 중 3건이 외국인 근로활동에 대한 불법 채용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국경 밖으로 외국인 행정적 추방에 대한 20개 결정이 채택되었고, 또한 러시아 연방법 322조(불법 국경 통과)와 327조(서류 위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23건의 사실이 적발돼 등록되었다. 교통경찰국 직원들은 외국인이 행한 행정적 법률 위반 22건을 적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결의 달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4월을 청결의 달로 발표하고, 도시에서 매해 봄마다 전통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행사를 시작했다.

깨끗한 금요일은 4월 5일부터 진행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4월 12일, 19일, 26일, 5월 3일에 도시를 청소하러 나선다. 4월 20일에는 전 도시의 수보트니크(토요노동, 도시 청소 및 정돈)를 진행하고, 4월 27일은 전 러시아 수보트니크 날로 지킨다. 5월의 도심 명절 행사들이 더욱 훌륭하게 진행하도록 각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 속에 겨울이 지난 도시를 신속히 정돈할 계획이다. 대규모 청소 및 정돈에 정기적으로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들, 관리업체 직원들, 자원봉사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음유시인 김 웨니아민

올해 3월 초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우리 노래를 내 노래인 것처럼 불러>란 제1회 열린 음유시인 경연-축제대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김 웨니아민(1967년생)이 <우수 싱어송라이터(작사 및 작곡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로 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 및 벨라루스의 여러 곳에서 200여 명의 재능을 가진 음유시인들 참가한 만큼 이런 큰 상을 받은 것은 큰 경사이다.

김 웨니아민과는 어릴 적부터 필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음유시인으로 공연할 때 보면서 '언젠가 한 번 신문에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끔 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그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았다.

웨니아민(애칭 웨냐)이 11세 때 코르사코브에서 가족과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필자의 동생과 같은 중학교에서 공부했었다. 웨니아민은 유머 감각도 좋았고, 동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며 사교성이 좋았고, 기타 치는 모습도 기억에 남아있다.

"인터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너에겐 거절 못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필자는 우선 지나간 경연-축제 대회에 대한 소감이 궁금했다.

"페스티벌에서 음유시인 장르가 살아있고, 발전하고 있으며 멋진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수업을 기른 성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아주

젊고 재능있는 연주자들도 원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의 연주에 진짜 놀랐다. 모두 훌륭하고, 악기를 훌륭하게 연주하며, 깊은 의미가 담긴 멋진 시를 쓰고 있었다."고 웨니아민이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음유시인 모임에서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감정과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학창시절부터 첫시, 첫곡을 쓰기도 했다. 음악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음악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1988년에 처음으로 사할린에서 진행된 음유시인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3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회에서 마음이 맞는 창작인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자기가 만드는 노래가 괜찮은지, 상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닌지 해서 같은 해 연해주에서 개최된 '프리모르스키에 스트루니(해변의 현)'이란 음유시인대회에 참가했는데 거기에서도 3등을 했다고 한다. 이 대회는 사할린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경연에 몇천 명이 모였고, 그때 웨니아민은 '내가 음유시인인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인 90년대에서 이 취미는 그냥 포기하면서 묻히고 말았다. 그는 22살에 아름다운 러시아 처녀와 결혼하여 예쁜 딸 둘(1992년생, 2002년생)을 두었다. 웨니아민의 전공은 치과기공사였다. 그는 사할린 의학콜레즈(의학전

문학교)를 졸업하여 여러 의료기관들에서 일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콜레즈를 졸업한 아내와 함께 미용 클리닉을 개업했다.

삶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털고, 취미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2003년이였다. 그때 다시 사할린의 여러 음유시인 공연 또는 대회에 참가하며 창작인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다.

2005년에 그는 처음 러시아 사마라 부근에서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왈레리 그루쉬 명칭 대규모 음유시인 대회에 참가했다.

"며칠간 10만여 명이 모여 캠프를 치고, 노래를 하거든요. 예선 3차까지 통과할 경우에만 이름난 음유시인, 작곡가 등과 큰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회입니다. 제가 이 대회를 여러 번 찾아가보았는데 제가 예크와도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았어요. 거기 이민 갔던사람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경연의 3차까지 통과했는데 결승전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코로나 19시기에는 이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때 참가자가 수가 50만 명에 달했죠. 그때 제 노래 '와실료크'가 상을 수상했습니다."라며 그루쉬 음유시인대회 참가 과정을 얘기했다. 사실 이번 <우리 노래를 내 노래인 것처럼 불러>란 제1



회 열린 음유시인 경연-축제대회에서 수상한 그는 부상으로 바로 올해 그루쉬대회의 '창작 프로그램'의 참가권을 얻었다. 이것은 러시아 음유시인 누구에게나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한다.

그는 노래를 만들 때 가사와 멜로디를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사의 의미가 우선이다. 먼저 글을 쓰고, 다음 음악을 창작한다. 어떤 글은 몇 시간 만에 나오고, 어떤 글은 쓰고 고치고, 고치고 쓰고 하면서 완성까지 몇 년이 지나고, 때로는 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어떤 글은 이미 부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그는 원래 생각을 많이 그리고 깊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 내용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다. 그의 바람은 사할린에서 음유시인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말로만 아니라 자신이 몸소 시도하고 있다.

10년 전에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산하 문화관리국의 이리나 게라시모와 국장을 찾아가 새로운 음유시인대회 기획을 소개했다. 사실 약속도 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했는데 신기하게도 문화국장이 그를 바로 접견해주었다고 한다. 김 웨니아민 바르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아포오스트로브'축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해마다 스타로뉘스코예 마을 부근에서 진행되는 이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특히 대륙에서 이름난 싱어송라이터가 찾아오고기도 하며, 축제에 대한 평판도 좋아졌다. 웨니아민은 이미 10년간 쉬지 않고 이 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직활동은 행사 1년 전에 시작한다. 올해 10회를 맞으니 이 축제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했다.

그리고 웨니아민 삶에는 최근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항상 취미로 여겨졌던 음유시인으로서 활동으로 그는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지금 사할린 필하모닉 아티스트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웨니아민과 인터뷰를 하며 그의 이야기와 노래를 더 듣고,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새고려신문이 추진하는 '사할린의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의 일환으로 김 웨니아민과 만남을 개최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선수, 전 러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획득

3월 29일 사할린주 태권도 선수 김 아르쭰이 러시아 연방 청소년(12세-14세)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번 경기가 라잔에서 열린 가운데 전 러시아 60개 지역에서 9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주에서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밀리야나 바벤코, 폴리나 사푸노와, 김 아르쭰, 나자르 그라초브, 티모페이 차갑소브, 신 블라디스라브 등 6명으로 이 선수들은 세르게이 리, 게르만 최, 드미트리 예가이 사범에게서 훈련을 받았다.

김 아르쭰 선수는 체급별 53kg급에 출전해 6차례 시합을 펼쳤다. 5차례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최종 결승전에서 다게스탄 선수와 겨루며 1 패했다.

경기 결과 사할린의 김 아르쭰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해 러시아 연방 태권도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유럽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Сахалинец завоевал серебро первенства РФ по тхэквондо

29 марта Тхэквондист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Ким завоевал серебряную медаль первенства РФ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12-14 л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остязания прошли в Рязани,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более 9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6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турнире представили шесть человек: Мильяна Бабенко, Полина Сапунова, Артем Ким, Назар Грачёв, Тимофей Тхагапсов и Владислав Син. Их поддерживают тренеры Сергей Ли, Герман Цой и Дмитрий Егай.

Артем Ким выступа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53 кг и провел шесть поединков. Спортсмен в пяти встречах одержал уверенную победу и уступил в финале лишь

сопернику из Дагестан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стязаний сахалинец получил серебряную награду, вошел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Ф и завоевал путевку на первенство Европы.

사할린에서 우수 무용수들 선발

사할린에 우수 무용수들의 이름이 발표되었다고 주 민속 창작센터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6회 <새시대의 자극> 사할린주 현대안무 축제-경연이 열렸다. 무용 경연대회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후원으로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가 주최해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5일간 진행되는 경기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 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노글리키, 오하, 포로 나이스크, 티뉘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흠스크, 유즈노사 할린스크 등 12개 지역에서 400명 이상이 참가해 현대무 용의 기술을 선보이며 우승을 두고 경쟁을 치렀다."고 전 해졌다.

3월 31일(일)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대규모 화려한 갈라콘 서트가 열린 가운데 사할린의 우수 무용수들이 공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에서 대상은 <나는 움직인다> 현대안무 연구 소의 참가자들이 차지했다. 최종 갈라콘서트의 심사위원인 타 치야나 자스칼코가 제작한 무용 공연으로 갈라콘서트는 더욱 인상깊게 마무리됐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брали лучших танц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названы имена лучших танцоров регион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VI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современной хореографии «Импульс нового времени». Танцеваль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остязания длились с 27 по 31 мар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дней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из

12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Ани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Охин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Тым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Холм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и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боролись за звание лучших»,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 воскресенье, 31 марта,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состоялся большой и яркий гала-концерт, где выступили лучшие танцо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ан-при завоевали участники лабора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й хореографии «Я - движение». Эффектно дополнил финальный концерт сводный номер, постановкой которого занималась член жюри Татьяна Заскалько.

방학기간 사할린 학생들, <다종 스포츠 경기>에 참가

'아틀레트(스포츠인)' 지역 청소년 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이 봄방학 기간 동안 <다종 스포츠 경기>에 참가했다고 네 웰스크 시행정부 문화, 스포츠, 청년정책부 사업지원센터가 전했다.

학생들은 각각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량을 펼치며 경쟁하는 가운데 '팔씨름, 볼링, 보드게임 토너먼트, 미니배구, 농구, 스포츠 퀴즈대회 등 즐거운 경기 출발은 기분을 한층 북돋았다.'고 전해졌다. 모든 경기를 마치며 참가자들에게 제과류 상품을 선사했다.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на каникулах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портивном многоборье»

В подростково - молодежном спортивном клуб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Атлет» школьник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весенних каникул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портивном многоборь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Центр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дел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Ребята с воодушевлением соревновались за каждый балл.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요리교실 계속 진행



지난 3월 3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립종환)에서 떡볶이 요리교실이 진행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요즘 한식이 인기 많고, 한민족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요리교실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미 뻘세(

왕만두)는 2회, 떡볶이(다양한 레시피)는 3회째 만들어보고 있다. 수강생 중에는 젊은이가 많고 부부도 적지 않다. 떡볶이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다. 그러나 요리교실 공간이 별로 크지 않아서 한 번에 10-15명밖에 받을 수 없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운영위 위원인 최금순 씨, 그리고 동 회 부회장인 유경옥 씨가 요리교실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요리 교실 진행은 최금순 위원이 진행했다. 요리 교실은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진행되며 앞으로 봄나물, 묵 등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주, <입맛 돋는 이야기>박람회 진행

사할린주의 25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들이 <입맛 돋는 이야기> 박람회에서 자사 제품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콜바사, 육류 가공품, 농산물, 제빵 및 제과류, 도시락 박스, 훈제생선 등을 맛보며 구입하기도 했다.

자영업자인 세르게이 소콜렌코는 "우리는 독특한 가족 레시피로 냉장 훈제생선을 소규모 생산하고 있다. 박람회에는 처음 참가하는데 품질 좋고, 맛있는 제품 제공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생산가공제품은 차별화된 독특한 향기와 부드러운 맛이 있다."고 전했다.

여행사 직원들은 전시회에서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할린 민속관광코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다른 부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

여행 정보서비스 전시회 주최자인 신 올가는 "이러한 행사는 1년에 2회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구매자들이 한 곳에서 지역의 다양한 생산제품을 맛보고, 구입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사 방문객들 모두에게는 행운 추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매시간 복권 기계를 통해 뽑힌 행운의 당첨자들은 행사 참가 기업들의 유쾌하고, 소중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행운의 당첨자 10명에게는 튀르키예 여행 상품권이 주어졌다.

박람회 공동 주최자인 엘비라 마리오와는 "〈입맛 돋는 이야기〉박람회 개최에 '나의 사업' 지역센터가 지원해주었다. 참가 업체들의 지원 덕분에 자사 제품을 선보이고, 사할린 구매자들의 호감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박람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정부부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원 속에 개최되고 있다.

관심을 갖는 모든 사할린 기업 대표들은 앞으로 유사한 행사와 참가 조건, 지원책에 따른 상세한 정보를 <나의 사업> 지역센터 사이트 (<https://mybusiness65.ru/> 또는 전화 문의: 8 800 222 0123)에서 받을 수 있다.

인도 기업, 사할린에 개인 위생용품 생산

(1면의 계속)

인도의 'PSK 바이오테크 프라이빗 리미티드 (Biotech Private Limited)' 기업개발 프라빈드 신그흐 사장은 사할린주에 인도 기업의 활동을 조직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해외 대표단은 사할린 지역의 보건체계와 유망한 투자 현장도 살펴 보았다.인도의 프라빈드 신그흐 사장은 "우리는 사할린주에서 개인 위생용품과 수의학적 의약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는 의학에서 핵심적 방식으로 적용되는 아이티기술(IT-technology)를 다루는 부서가 있다. 이

는 사할린주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이다. 우리는 장기간 사할린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장기간 공동기획의 전체 주기가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첫 생산 가동은 2024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아기 기저귀, 개인 위생용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공장 생산 가동으로 기술적 재활 용품의 운송에 대한 지역의 의존도를 감소 시키며, 장애인들에게 물품 제공 기한도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사할린한인사(‘우리 가족’ 주제 포함),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요. 문의전화: 43-59-80

콩쿠르조직위원회

세종국제고 ·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 한국문화 확산 맞손

세종국제고 · 사할린 한국교육원, 한국어 보급 확산 협약

(세종=연합뉴스) 이은과 기자 = 세종국제고등학교는 사할린한국교육원과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희동 세종국제고 교장과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교류와 포럼 개최, 프로젝트 시행 등에 나설 계획이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체 한국어·문화 강좌 및 특강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어 채택학교를 지원한다. 한국어 경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도 주관한다.

세종국제고는 미국과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공동수업 및 방문 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과 교류 국가와의 문화상자 교환 등 우리 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사할린은 한인 비율이 높고 최근 한류 확산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희동 세종국제고등학교 교장(왼쪽)과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이 2일 세종국제고 회의실에서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4.2

박희동 교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사할린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계신 분들께는 해당 분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원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세종국제고와 긴밀히 교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할린귀국동포회, '동포 소식 전달' 김경희 KBS PD에 감사장

"사할린 한인사 알게 돼 소중하고 영광... 의미 있는 기획 고민"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제작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 동포들은 아픈 우리 역사예요. 8년째 프로그램을 만들며 사할린 한인사를 더 알게 돼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기획을 하려고 고민해요."

2017년부터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이끄는 김경희(59) KBS PD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최근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권경석)에서 감사장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국내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단체인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는 지난 23일 사할린 동포들의 경기 파주 정착 15주년을 기념해 파주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파주 아리랑 콘서트'에서 김 PD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당시 권경석 회장은 "사할린 동포들의 이산(離散)과 '이산의 이산'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할린 동포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사할린 동포, 고려인, 중국 동포 등 북방 지역 동포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문화와 생활정보를 제공해 민족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한민족방송 대표 프로그램이다.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의 가족을 찾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1972년 4월 '사할린 동포에게'라는 제목으로 처음 방송을 시작했고, 1988년 프로그램 제목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다. 2022년에 개설 50주년을 맞았다.

특히 김 PD는 매주 카자흐스탄과 사할린을 전화로 연결해 현지 소식을 듣는 '사할린 통신원'과 김병학 고려인문화관장이 출연하는 '고려인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다. 중국 동포 위주에서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으로 범위를 넓



한 것이다.

그는 "2019년 처음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을 초청해 국내에서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소외된 동포들을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2022년 국내 공개방송 때도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참석해 호응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할린 동포 등 국내로 귀국하는 역(逆)동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며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느끼는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보듬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는 또 "동포 2~3세 등 차세대 시청자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 함께 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한다. 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사고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그는 1987년 KBS 공채 15기 PD로 입사했다. 국제협력실장, KBS아메리카 사장 등을 지내며 약 20년간 국제 업무를 담당했다.

또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기획전략그룹의장, 국제공영TV콘퍼런스(INPUT) 국제이사,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 한국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방송 정책과 전략을 세워 국제통으로 불린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50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со значением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крайне мало. Мно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лагают, что их существует в языковой корейской практике всего около 180—250. Преобладающее их большинство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ещё в эпоху зарождения трёх государств: Пэкче, Когуре, Силла (эт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2 тыс. лет назад).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различных хроник, документов, летописей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в случае с корейскими фамилиями актуальна тенденция сужения. Это заметно и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взглянуть на соотношение фамилий и общего числа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составляет 75 млн.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всего 50 фамилий.

Самой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й корейской фамилией является Ким. По данным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за 2015 год, пятая часть страны или 21,5 % всех жителей носили именно фамилию Ким. Далее следуют фамилии: Ли (14,7 %), Пак (8,4 %), Чхве (4,7 %), Чон, Кан, Чо, Ю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У некоторых фамилий отличается написание, например, фамилия Ли: ㄹ이 — южнокорейское написание, в скобочках помечено (Ю); 리 — написание, характерное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кобках рядом с иероглифом помечено (С).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фамилии состоят из одного иероглифа ханча, то есть из одного слога. Встречаются фамилии, состоящие из двух слогов (например, Намгун и Хванпхо), однако данные родовые имена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первой сотни в списке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Рассмотрим список и значение фамилий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 от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к мен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й, а также написание на рус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1. Ким (김) — Kim, Gim, Ghim, Kym, Keem, Gym — «золото, металл, золотой».
2. Ли, Лигай, Нигай, Ни, И (이 (Ю), 리 (С)) — I (Ю), Ri (С), Lee, Yi, Rhee, Ree, Reeh, Ee, Rie, Rhie — «слива».
3. Пак (박) — Pak, Pak, Bak, Park, Back, Bahk, Pahk — «тыква».
4. Чхон, Чанг, Юнг или Джонг (정) — Jeong, Chung, Jung, Joung, Chong, Cheong, Choung — от имени родоначальника.
5. Чхве (최),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Цой — Choe, Choi, Che, Choy, Chwe, Chey — «высокородённый» или «высокий, обрывистый»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6. Чо, Тен, Чон, Тё, Дё (조) — Jo, Cho, Jo, Joe, Joh, Jou — от личного имени; по другой версии, «поле» или «глиняная посуда».
7. Кан, Канг, Кханг (강) — Gang, Kang, Kahng, Khang — «ласточка».
8. Чан, Чжан, Чанг, реже Занг (장) — Jang, Chang, Jahng, Jhang, Zang.
9. Юн (윤) — Yun, Yoon, Youn, Yune, Yeun — «губернатор».
10. Лим, Им (임 (Ю), 림 (С)) — Im, Lim — «лес, лесной край»; также идентична китайскому иероглифу того же имени.
11. Шин, Син (신) — Sin, Shin, Shinn, Sheen, Seen, Sinn, Synn.
12. Ю (유 (Ю), 류 (С)) — Yu (Ю), Ryu (С), Yoo, You — «дерево ивы» или «иварю».
13. Хан (한) — Han, Hahn, Hann, Hanh — «повелитель», «страна ил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14. О (오) — Oh, Oe, Au, Ou, Awh.
15. Сео (서) — Seo, Suh, Surh, Su, Sur, So, Seoh.
16. Чон, Джун, Чун (전) Jeon, Jun, Chun, Chon, Cheon.
17. Гвон, Квон (권) — Gwon, Kwon — «кулак».
18. Хван (황) — Hwang, Whang — «жёлтый» или «Королевство Хуан».
19. Ан (안) — An, Ahn, Arn, Aan — «внутренний».
20. Сонг (송) — Song, Soung.
21. Хонг (홍) — Hong, Houng, Hoong, Hung — «широкий» или «большой».
22. Ян, Рьян (양 (Ю), 량 (С)) — Yang (Ю) Ryang (С) — «мост».
23. Ко, Го (고) — Ko, Go, Koh, Goh, Kho, Gho, Kor, Co — происходит от сокращённого имени Когуре.
24. Мун (문) — Mun, Moon, Muhn — «письмо».
25. Сон, Шон (손) — Son, Sohn, Soun.
26. Бэ, Бай (배) — Bai, Bea, Pae, Pai, Bay, Pay.
27. Пэк, Бэк (백) — Baek, Paek — «белый цвет».
28. Хео, Хур, Ха (하) — Heo, Hur, Huh, Her, Hu, Ho, Hoh, Neoh — символ означает разрешение или защиту.
29. Но, Ро (노 (S), 로 (N)) — No (Ю), Ro (С).
30. Нам (남) — Nam, Nahm, Nham, Narm — «юг».
31. Сим, Шим (심) — Sim, Shim, Seem, Sheem, Sihm.
32. Ха (하) — Ha, Nah, Har.
33. Джу (주) — Ju, Joo, Chu, Choo, Chow, Jou, Zoo, Jew, Zu — «красный».
34. Гу (구) — Gu, Koo, Goo, Kou, Kuh, Khoo, Khu.
35. Гвак, Квак (곽) — Gwak, Kwag, Kwack, Gwag, Koak, Kuark, Quack — «городские стены».
36. Сон (성) — Seong, Sung, Soung, Song — «преуспеть» или «достичь».
37. У, Оу, Ву, Оу (우) — U, Woo, Wu, Ou, Wo, Uh.
38. Ча (차) — Cha, Char, Chah.
39. Цзинь или Чин (진) — Jin, Chin, Jeen, Gin.
40. Мин (민) — Min, Minn, Mihn.
41. Рю (류(유)) — Ryu, Ryou, Rou, Ryoо, Yu, Yoo, You, Yuh — от иероглифа, означающего «ивовое дерево»; родословную также иногда называют «ива Рю».
42. На, Ра (나 (Ю), 라 (С)) — Na (Ю), Ra (С).
43. Цзи, Джи (지) — Ji, Jee, Gi, Chee, Gee, Jhi.
44. Эм, Эом (엄) — Eom, Um, Uhm, Oum, Ohm.
45. Бен, Байон (변) — Byeon, Byun, Byon, Pyun, Byoun, Pyon, Pyoun, Pyeon.
46. Чэ (채) — Chae, Chai, Che, Chea, Chay.
47. Вон (원) — Won, Weon, Woen, Wone, Wun, One.
48. Банг, Бханг, Банг, Панг, Пханг (방) — Bang, Bhang, Bahng, Pahng, Phang.
49. Чон (천) — Cheon, Chun, Chon, Choun.
50. Кенг, Кен (경) — Gyeong, Kyung, Kyoung, Kyeong, Kyong — «пейзаж» (景) и существует один бон-гван для другого клана Кен, что означает «празднование» (慶).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сточник: <https://semfamily.ru/istoriya-familij-stati/korejskie>

20 лет назад основан сайт АРИРАН.РУ

1 апреля 2004 г. в Москве был основан портал АРИРАН.РУ (www.arirang.ru). Первоначально АРИРАН.РУ работал как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газеты «АРИРАН-ПРЕСС», которая выходила в Москве в 2003-2008 гг. С 2005 года существует как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корейцев СНГ.

В 2000-х гг. АРИРАН.РУ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а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сайта Владислава Хана «Корё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в 2009 году стал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новостных онлайн-изданий, публиковавших информацию о корейцах стран СНГ.

Пик работы сайта в качестве новостного издания пришёлся на 2004-2013 год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АРИРАН.РУ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ей онлайн-библиотекой, которая собирает и хранит PDF-версии последних номеров периодических изданий корё сарам и формирует на этой базе уникальную электронную коллекцию корейских СМИ, выходящих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тран СНГ. На страницах портала можно найти свежие номера газет «Корё ильбо» (Алма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оскв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Корё синмун» (Уссурийск). На сайте выложен полный электронный архив журнала «Единство», выходившего в Москве в 1996-2019 гг., опубликованы номера журнала «Корё сара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газет «Корё сарам-на-Дону» (Ростов-на-Дону), «Ильчи» (Бишкек), «Корё синмун» (Ташкент), «Мугунхва» (Киев). Общий объём изданий корё сарам,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на сайте АРИРАН.РУ,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2200 PDF-номеров за 1991-2024 годы.

Постоянной и популярной рубрикой портала также стал раздел «Ищу тебя», посвящённый поиск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орейцев стран СНГ, потерявших связь друг с другом.

Дмитрий Шин — основатель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корейцев СНГ АРИРАН.РУ, автор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свящённых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Героя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и сотрудникам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 сегодня — один из редакторо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а KOPĒ-CAPAM/KORYO SARAM/고려인.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тозвало своё обращен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 проведении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Лидер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Василий Цо в своём обращении к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Дмитрию Чернышенко сообщил об отказе организации от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чных 160-летн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Трагедия в «Крокус Сити Холл», проведение СВО на Украине, переходящее в состояние войны, ухуд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а также обострени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оречий в мире делает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атмосферу дл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юбилею.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полагает несвоевременным и неуместным отмечать юбилейные торжества и поэтому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б отзыве

обращени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поддержк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16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 говорится в письме В.И. Цо вице-премьеру Д.Н. Чернышенко.

Руководство ООК уже уведомило о своём решении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Дохуна и посла КНДР в России Син Сон Чхоля.

В то же время, по слова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К Вячеслава Ким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Москве, намеченная на осень эт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ряд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в рамках 16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остаются в силе.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ему адресу: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В феврале РК посетили 1,03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побывали 1 млн 3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это на 115%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86% февральс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2019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туристов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34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туристы из Японии, Тайваня, США и Вьетнама.

За первые два месяца года в РК побывали 1 млн 91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Это на 109,2%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83% показателя 2019 года.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2 млн 512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бывали за рубежом, что на 45,6% больше, чем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96% показателя 2019 года. За первые два месяца года за рубежом побывали 5 млн 28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ИД России: Москва ответит на санкции Сеула

Введение Сеулом нелегитимны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Москвы является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 шагом и вызывает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3 апреля на брифинге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Ответ, конечно, будет дан, как мы всегда это делали».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РК «находятся в глубоком кризисе по вине Сеула, и за этим стоит Вашингтон», - добавила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Коснувшись обвинений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НДР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Россия развивает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связи с дружествен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рм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без нанесения ущерб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Россия «разочарована попытк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решить комплекс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методом санкционно-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доказавшим свою неэффективность. Это ведёт к разрыву ест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 в конечном счёте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мой РК», - подчеркнула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Россия призывает Сеул «пересмотреть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ую линию, вернуться к совместному поиску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пособов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 учётом законных озабоченностей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 заявила Мария Захарова.

2 апр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вело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двух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возглавляемых ими компаний, а также против двух морских судов. Они подозреваются в связи с отправкой за рубеж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и перевозкой военных грузов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Россия заблокировала резолюцию по санкциям против КНДР

Россия проголосовала против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США резолюции о продлении на год мандата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ООН, которая контролирует исполнение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тай воздержался при голосовании, остальные 13 членов Совбеза ООН поддержали документ.

Объясняя причину применения права вето,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и при ООН Василий Небензя заявил, что авторы документа не учли предложение Москвы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сроков действия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являются бессрочными.

Группа экспертов по контролю за санкциям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а создана в 2009 году резолюцией 1874. В неё входят восем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яти стран-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СБ ООН, а также РК, Япония и Сингапур, чьи кандидатуры утверждаются генсеком ООН. Срок работы группы завершается 30 апреля. РК и США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российским ве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итая отметил, что Пекин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изывы Москвы установить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срок действия. Он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что мнение России не было принято во внимание.

Ведётся розыск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 фейков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Полиция разыскивает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 найденных в Сеуле копий изображения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ёна в тюремной одежд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нача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зображ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одетого в тюремную одежду и сидящего в камер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в коммерческом здании в сеу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Чонно-гу. Заявление в полицию подал член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вак Сан Ён, который баллотируется на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Листок со сфабрикованным изображением лидера партии принёс в его офис один из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я просматривает записи с камер наруж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опрашивает свидетелей и пытается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 по отпечаткам пальцев.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критикует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одвергло критике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в котором он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школы и других медицинских реформ.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Но Хван Гю обвинил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воей власти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редвзят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ан Чжэ Сын сказал, что заявление Юн Сок Ёля подтвердило отсутствие у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желания и способности разрешить продолжающийся медицинский кризис. Один из врачей, пожелавший сохранить анонимность,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зидент не представил план подготовки финансовых ресурс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ыло 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новых врачей и расшир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RKI

Южная Корея готовится к парламентским выборам

10 апре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йдут всеобщие выборы,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новый состав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страны.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оценкам, пока наблюда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о у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которая и так контролирует большинство нынешнего состава парламента. В четверг, 28 марта, в стране о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а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кульминацией которой станут собственно выборы нового, 22-го по счету, состав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С РК).

В Корее парламент является однопалатным, а выборы проводятся по смешанному принципу. Избиратели голосуют как за конкретных кандидатов по одномандатным округам, так и за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сего в НС РК насчитывается 300 депутатских мест, 254 из которых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одномандатным округам, а остальные 46 разделятся между партиями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тому, как проголосуют за них избиратели. То есть каждый избиратель на участке получит два бюллетеня: один для выбора кандидат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округу, а второй - для выражения поддержки какой-либо из партий.

Как уже стало традицией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хотя формально в выборах участвует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на этот раз около четырех десятк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но главных конкурентов два: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которую считают консервативной, и ее главный оппонент -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ридерживающаяся "прогрессив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Первую возглавляет экс-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Хан Дон Хун, вторую - бывш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Ли Чжэ Мён.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обе партии пережили период раскола, когда от них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причинам отделились некоторые фракции и достаточно известные политики, однако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ими партии - в частности, "Новое будущее" во главе с экс-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Ли Нак Ёном и "Партия новых реформ" с лидером в лице бывшего главы консерваторов Ли Чжун Соком - пока не смогли составить реаль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двум глав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сила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день проводится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амых разных опро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чтобы предугадать итог голосования. Согласно им, больше всего шансов на общую победу у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ногие аналитики предсказывают, что она сможет сохранить большинство и в новом составе парламента, продолжив свое доминирование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органе власти. Если это случится, то нынешнему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придется продолжать свои "битвы" с парламентом, поскольку оппозиция отклоняет более 80 процентов его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тог-

да как сам Юн то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льзовался правом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вето, "заворачивая" законопроект парламент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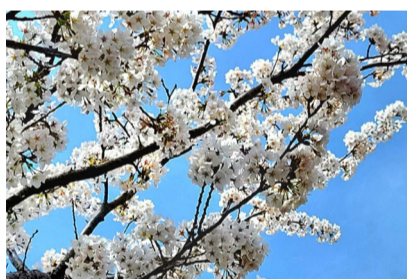
Впрочем,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данные опросов в Корее часто расходятся с реальными итогами, а потому что-то более-менее определенное можно будет сказать лишь поздней ночью 10 апреля или ранним утром 11-го, когда станут поступать данные о голосовании.

В этот раз подсчет голосов займет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В партийном списке значится более трех десятк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этой связи бюллетень, который получит каждый имеющий право голоса гражданин Кореи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партиям, будет иметь рекордную длину - более полуметра или, если быть точным, 51,7 с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бюллетени придется проверять и считать без примен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машин, вручную.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на 22-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состоится 5-6 апреля, а день "основ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 10 апреля. Участк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6 часов утра и до шести вечера.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аво голоса в Южной Корее имеют около 44 миллионов 38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группа избирателей -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до 59 лет.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конкуренции в борьбе за одномандатные округа - 5,5 человека на одно депутатское кресл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31 марта 2024 г.)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зацвела вишн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ачался, пожалуй,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асивых и приятных сезонов. Стартовал с курортного субтропического острова Чечжу, что на самом юге, повсюду начала цвести знаменит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вишн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цветение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 и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 в районе городов Пусан, Ёсу, Чханвон. Постепенно эта ослепительно-белая волна будет подниматься на север.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 столицы - Сеула - она дойдет в первых числах апреля.

В этой связ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самых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проводятся тематические фестивали. Самым крупным и известным является фестиваль цветущей вишни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Чинхэ. Впрочем, насладиться этой красотой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в знаменитых своими вишневыми аллеями районах, но и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Вишни в Корее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В этом году цветение началось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зже, чем в прошлом, и продлится в каждом из регионов 7-10 дней.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и гост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пешат насладиться этой красотой, сделав 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на память.

Хотя период цветения вишни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олог, но и после этог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родолжит радовать буйством красок, так как начнут распускаться и покрывать страну красивым ковром другие цвет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Чечжу -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проблему могут решать натурализ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Сеул, 31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Почти половина южнокорейцев готовы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качестве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и стали более терпимы относиться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еребежчикам и рабочим-мигрантам, показал опрос.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ю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ореи, проведенному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1 сентября по 31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45,9 процента из 8221 респонд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принимают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качестве членов страны, в то время как 25,4 процента ответили, что нет. Опрос отражает надежды на то,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и окажут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по мере сокращения и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2,51 миллион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ли 4,9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ее населения.

Однако опрошенн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тсутствие доверия к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был у членов семьи - 3,6 балла из 4,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друзья и знакомые (2,9 балла) и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1,8 балла). Отношение общества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еребежчикам и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мягчилось, поскольку 16,5 процента опрошенных ответили, что не принимают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 качестве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что на 5,7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мен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говорится в опросе. Только 7,2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не принимают трудящихся-мигрантов

как часть общества, что на 2,8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меньше, чем в 2022 году. Респонденты выбрали «высо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й задачи страны на ближайшие 10 лет и полагали, что рост важнее распределения. Опрос показал, что уровень счастья людей повышается, когда они получают более высокие доходы. Уровень счастья семьи, зарабатывающей менее 1 миллиона вон (746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ил 6,1 балла из 10 возможных, в то время как семья, зарабатывающая от 5 до 6 миллионов вон, составила 6,9 балла.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ыл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ользующимися наибольшим доверием, набрав 2,9 балла из 4 возможных,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абрало наименьший балл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и - всего 1,9 балл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добрил работу вла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ходе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одобрил меры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це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говор в режиме видеосвязи состоялся 3 апреля.

Как доложил Президент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выполн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ейчас идет ликвидация фонда, получившего аварийный статус, после указанной даты. Жилья. Построен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переселено 2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6 году второ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ён.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в новое жилье переедут 3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Также успешно ведется газификация регио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ее уровень составлял 14 процентов. Акту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 60 процентов.

В регионе построены 33 новых объ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21 объекте провед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ско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работает клиника, использующая медицин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Это избави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правляться на лечение за границу, в Москву ил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амечен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сфере борьбы с онкологией.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ют 18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в которых проходит обследование каждый третий житель региона. На островах появилась служба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могают пациентам попасть в поликлинику, напоминают о приеме лекарств.

-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у Вас в целом все получается. Может, не все, но получается. Результаты очевидны – это факт. Безусловно, еще очень многое нужно сделать. Уверен, что Вы знаете, что и как надо делать. Я бы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казалось бы, мелочь,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а важна для людей – состояние детских садов. Нужно вовремя провод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капитальные ремонты, строить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ы наверняка знаете, что такой вопрос есть. Я Вас прошу об этом не забывать,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Чем больше будем спортом заниматься, меньше будем пить,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Две трети сахалинцев занимают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Это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нас отмечает. Понятно, что по показателям объектов мы занимаем передовые мест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Газпром» и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лексей Миллер, кроме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социа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В частности, «Газпром» стро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дн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олимпийского уровня.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происходят в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е. Создана «Академия эстрады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в которой учатся остров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Появились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и эстрад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открыта новая сцена драмтеатра.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 выполняется в сфер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все подъезды, завершится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сех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Меры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закреплении на островах кадр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удалось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Президен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йчас строится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Он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заказам островных компаний. И уже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в которых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Индийский бизнес созд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средств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на Сахали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ключил соглашение с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инд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 «Пи Эс Кей Байотэк Прайвэт Лимитэд». Уже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локализова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дгузников 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ников.

Подписание документа стало продолж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ое началось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Нью-Дели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стороны тогд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налаживании прям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и островным регионом. Первым этапом их реализации и стан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редств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ник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индийский бизнес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прос запуска полноценного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 На нашей встрече мы обсудили важные асп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теперь переходим к следующему шагу. Сахалин, учитывая его кадровый и лог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может выступать как плацдарм для индийского фар-

мацевт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выхода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и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Это органично увязывается с нашей стратегией развития портов и авиацио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видим широ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надеемся на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Директор по развитию бизнеса компании «Пи Эс Кей Байотэк Прайвэт Лимитэд» Прабинд Сингх поблагодарил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работы индийского бизнеса на Сахалине. Зарубежная делегация ознакомилась с системо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 Наш основной фокус – в обл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редств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а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етеринарных препаратов. Также в нашей компании есть департамент, занимающийся ИТ-технологиями, которые применяются,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 медицине. Это могло бы стать еще одн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Мы намерены прийти в регион надолго. Полный цикл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рассчитан на долгие годы, - сказал Прабинд Сингх.

Пер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уже в ноябре 2024 года. Выпускать на нем будут подгузники,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и други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сходники. Его запуск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зависимость региона от завоз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ТСР) и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их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валидам.

По 75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ат участник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риурочены ко Дню Победы. П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выплатят жителям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и узникам фашистских концлагерей. По 5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ат «дети войн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сего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будет охвачено более 13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а эти выплаты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82 млн рублей.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бед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етераны – главные герои праздника Победы. Мы должны окружить вниманием каждого из них. Еще раз убедитесь, что они всем обеспечены, 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ажн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с ветеранам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узнать правду о событиях военных лет из первых уст,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сегодня проживают 272 ветеран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блокадников, узников концлагерей.

- Для наших герое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ежемесячные, ежеквартальные и ежегодные выплаты. Есть и други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 бесплатное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ыплаты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За каждым ветераном закреплены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 персональные помощники по всем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ед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на дому, в стационаре для ветеран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тдельные палаты.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решаются вопросы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те же преференции.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Побед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ледующий год будет ознаменован ярчайшей датой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 80-летием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одготовка к масштабному событию уже начата.

Этот год по указу губернатора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йдет множ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званных сохран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В Роц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здадут музейны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 Каждый год в селе провод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боев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благоустроим территорию, создадим зону для зрителей, где они смогут с комфортом наблюдать за реконструкцией, а также парковку,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Юрий Филипенко.

В музее также готовятся к появлению новой экспозиции «Геро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ткрытие планируется 3 сентября – в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готовятся ко второй, более масштабной выставке «Время героев». Та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едметы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снаряжения и вооружения солдат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мемориала в честь воинов СВО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принимали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Христофоровке. Их пожелания будут обязательно учтены и пр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второго этап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на встрече с семьями погибших в ход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помним,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9 декабря – в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четырехметровый обелиск в виде расколота стены и могилы павших бойцов,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по стандарту воинских захоронений. Здесь установили гранитные стелы, отсыпал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щебнем, возве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граждения и обустроили дренажную систему.

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должен начаться в мае,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мемориала в чес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овершивших общий подвиг,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 едином стиле.

- Мы будем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ться с семьями наших героев, обсуждать все этапы и учитывать каждое пожелание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Все работы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Сабина Кушевская отметила, что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свяжутся с каждой семьей. Они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вопросы с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биографическими справками.

На встрече с родными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оекте «Спорт в семью». Он был запущен в конце 2022 года и стал опорой для многих, кто потерял своих близких на СВО.

«Спорт в семью» объединил также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из районов, которые нередко приезжают на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могут все, кому необходима поддержка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Почти 6 тысяч звонков поступило в колл-центр ЖКХ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едином колл-центре ЖКХ, созданно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 три месяца 2024 года операторами принято 5916 звонков. Самой актуальной темой стала расчистка дворов от снега.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из них (3 997) приходится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500 звонков оставили жители Долинского 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ЖКХ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оперативн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вязанных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Мы помогаем жителям решать возникающие у них вопросы. Попадают и сложные ситуации,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участия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ЖКХ Татьяна Букреева.

Самой актуальной темой обращений за прошедшие три месяца стала уборка снега с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3 тысяч заявок. 734 звонка касались вопроса обслуживания домов, 324 –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268 – вывоза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и крупно габаритных отходов, 120 – водоснабж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операторы дали 947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компетенции горячей линии.

Отметим, перечень задач операторов горячей линии регулярно расширяется. В августе 2022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стали принимать заявки на покупку угля, в ноябре приступили к приему вопросов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домовладений. С апреля 2023 года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на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Напомним, обрати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можно с 08:00 до 20:00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субботу (воскресенье – выходной) следующими способами:

- по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у 8-800-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или *0065 –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 написать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WhatsApp по номеру: 89248844203 (только для сообщений, звонки не принимаются), указав при этом ФИО, адрес и проблему.

Более 100 островитян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трудоустроили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искателям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оказывают содействие на всех этапа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пециалисты кадровых центров помогают составить резюме, готовят к собеседованиям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 участвуют в них, формируют доступный маршрут передвижения до места работы и обратно.

К каждому случаю подходят индивидуально. Соискателю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огут даже назначить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из числа специалистов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 Мы подбираем вакансии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его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ей. Если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искатели проходят переобучение или приобретают но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С начала 2024 год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островной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уже нашли работу 110 человек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Чтобы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гражданам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лично обращаться в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а портале «Работа в России» можно дистанцион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озможными вариантам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откликнуться на интересные ваканс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인터뷰



정영순 신임 대한고려인협회장
"상호 교류 네트워크 확대할 것"

사할린 동포 3세...
"배경 따지지 않고 같은 공동체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2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사회·법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적인 상호 교류 네트워크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대한고려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영순(52)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러시아어 객원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별로 고려인 통합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대한고려인협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 고려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정 회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고려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 거주국과 모국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며 “올해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사회와 모국 사이의 가교로서 적극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고려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와 이슈에 대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단체(NGO)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한인의 극동지역 정착 160주년이기 때문에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를 구분하고 있지만 배경을 따지지 않고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려고 한다”며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이런 의견은 동북아 지역 동포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동평) 등의 입장과도 같다. 동평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고려인 이주’라는 기존 용어의 범위를 사할린 동포와 중국 동포 등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고려인/한인 이주’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사할린 동포 3세인 그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다. 유주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전공해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모스크바국립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국립대에서 한국어 교수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뒤 2008년 한국에 정착했다. 경성대와 경찰대 등에서 러시아어 교수로 일했고, 러시아 교과과정 중심의 대안학교 ‘러시아 칼리지 부산’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20년 8월 귀화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청, 3월호)

최재형기념사업회, '제5회 최재형 상' 수상자 선정

대상에 정세장 면사랑 대표, 단체상에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와 새한누리 나눔공동체
특별상 활동가상에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



정세장 주식회사 면사랑 대표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김은미 새한누리나눔공동체 대표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4월 1일 '제5회 최재형 상' 수상자를 발표 했다.

'최재형 상'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의 폐치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 되던 2020년 제정된 상이다.

5회째를 맞은 올해 '최재형 상' 대상 수상자로는 정세장 주식회사 면사랑 대표가 선정됐다. 정세장 대표는 '면사랑'을 운영하면서 고려인 200여 명을 채용해 정체성 교육과 한글교육에 힘썼으며, 광주 고려인 마을 노인돌봄센터에도 식재품을 지원했다. 또한 최재형기념사업회를 지속적

으로 후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우수리스크 최재형민족학교가 운영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천만원을 후원했다.

단체상에는 해외와 국내에서 '폐치카'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점배)와 (사)새한누리 나눔공동체(대표 김은미)가 각각 선정됐다. 아프리카 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한인회를 이끌면서 동포 사랑을 실천했고, 새한누리 나눔공동체는 북한이탈가정 돕기와 중도입국 청소년 돕기 등 여타 봉사단체와 차별된 활동을 펼쳤다.

특별 활동가상 수상자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행되는 고려일보

의 김 콘스탄틴 총주필이 선정됐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극장과 더불어 고려인들의 삶을 지탱해 준 정신적 지주인 고려일보에서 20여년간 주필로 활동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재형 상만큼은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최재형 선생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기업가정신을 기리고 최재형 선생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재형상 상금 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혈액종양 앓는 재외동포에 희망을'... 재외동포청, 혈모세포 이식 사업 홍보

51개 공관·106곳 한인회에 자료 배포... 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공동 사업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난치성 혈액종양을 앓는 재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 이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 동안 해외에서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환자가 거주 국가에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것은 타 인종 간의 낮은 HLA(사람백혈구항원) 일치 확률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보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재외동포들이 원활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동포청은 51개 재외공관과 106개 한인회에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지원사업'리플렛 등 관련 홍보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홍보 자료에는 기증희망자 모집사업을 비롯해 재외동포 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 진행시 상담과 함께 검체채취 등을 지원하는 이식조정 지원사업, 재외동포의 조혈모세포 채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등이 소개돼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그 동안 거주 국가에서 타 인종간 낮은 HLA 일치 확률로 혈액종양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한국, 국제특허출원 30년간 지속 증가

한국 국제특허출원(PCT), 5위권 내 유일하게 증가... 4년 연속 세계 4위
한국 마드리드 상표출원, 전년대비 두 단계 상승해 세계 9위

한국 헤이그 디자인출원, 세계 3위 차지... 삼성전자 1위, LG전자 3위 등 두각

특허청은 2023년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대비 1.2% 증가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국제특허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하나의 특허출원서 제출을 통해 복수의 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를 말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은 모두 증가해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입증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27만2,600건)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전년대비 ▼1.8%)하고 마드리드 상표출원(6만4,200건)도 전년대비 7.0% 감소해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국제출원 체계의 사용이 감소했다.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량은 WIPO가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국제특허출원은 2만2,288건(전년대비 ▲1.2%)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전년 동위)를 차지했다. 5위권 내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출원량은 모두 감소했다.

국제특허출원(PCT) 다출원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2위, 전년 동), LG전자(6위, ↑3), LG에너지솔루션(17위, 전년 동) 등 국내 기업 3곳이 상위 20개 출원인에 포함돼 한국의 출원량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기업의 2023년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2,090건(전

년대비 ▲2.9%)으로 전년대비 두 단계 상승해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상위 30개 출원인에는 삼성전자(27위)와 현대자동차(28위) 등 우리기업 2곳이 포함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21단계나 상승해 적극적인 국제상표출원 활동을 보여줬다.

한국의 2023년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825건(전년대비 ▲1.0%)으로, 세계 순위 3위(전년 동)를 차지했다.

상위 20개 출원인에는 국내 기업 3곳이 포함됐는데,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해 1위에 올랐으며 LG전자는 네 단계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37위에서 19단계 상승해 18위로 도약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출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과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해외 지재권 불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결과는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고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확보에 유리한 국제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армрестлингу, боулингу, дартсу, турниры по настольным играм, мини - волейболу, баскетболу, спортивные викторины и, конечно, веселые старты, подняли настроение всем»,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конце соревнований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сладкие призы.

오하 지역의 대학생들, <생태주간>활동 전개

3월27일 сахалин 국립대학의 모든 기관에서 전개한 <생태주간> 활동에 сахалин 국립대 오하 분교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며칠에 걸쳐 장래의 전기기술자, 석유와 가스생산자 개발자, 석유·가스관 건설자들은 주변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따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후 <자연을 보전하자>를 주제로 그림 및 포스터 경연을 벌인 가운데 그 결과 전체가 그림 전시회장이 되었고, 2학년 활동대원들이 행사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인도와 석유 펌핑 기념비의 눈을 치웠다. 자주 방문객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쌓인 눈더미 때문에 기념비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으나 지금은 모든 게 잘 정돈되었다."고 활동 주최 측이 전했다. 여름에는 대학 구역에 꽃밭을 가꿀 계획이라고 오하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은 덧붙였다.

Ох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провели акцию «Экологическая неделя»

Студенты Ох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СахГ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акции «Экологическая неделя», которая стартовала 27 марта во всех заведениях ведущ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ву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удущие электрики, разработчики нефтяных и 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строители газонефтепроводов знакомились с проблемам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искали способы реш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После этого был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и плакатов на тему «Сохраним прир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явилась целая галерея. Завершением акции стал трудовой десант второкурсников.

— Мы очищали от снега тротуары и памятник нефтяной качалке. К нам часто гости приходят, а среди сугробов тот же памятник почти не видно. Теперь он во всей красе, — рассказа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Лет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илиала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адить цветы, добавили охинские экологи.

제2차 <야생 식용식물> 미식축제, сахалин 요식업체들 준비 시작

5월에 많은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сахалин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сахалин 셰프들의 요리 명작들을 맛보고, 스스로 새로운 맛의 재료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축제의 일환으로 야생 식용식물(산나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3월에 сахалин 지역에서 첫 산나물을 활발하게 채취해 요식업체들이 개발하는 요리와 세트들의 주요 <미식 주제료>로서 сахалин의 봄철 맛을 돋을 예정이다.

전례대로 сахалин에 유명 셰프-조리사들이 초대되며, 이들은 활동교실을 진행하고, 올해 처음으로 축제의 일환으로 숲속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예정이다.

Рестораторы Сахалина начали подготовку ко второму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Дикоросия»

Большая встреча кулинаров пройдет в мае.

У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есть уникальный шанс попробовать шедевры от островных шефов и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новые вкусовые сочет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можно будет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из дикорастущих растений.

В марте на острове активно начинают собирать первые дикорастущие растения и главным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м участником» блюд и сетов, которые разработают рестораны, станут сезонные островные деликатесы.

На остров по традиции пригласят именитых шеф-поваров.

Они прове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уют сбор дикорастущих растений в лесу.

보이스피싱범, сахали인의 연금 수급자를 속여 2백만 루블리 갈취

알렉산드롭스크-сахалин스크의 여성 주민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2백만 루블리를 잃었다고 сахалин주 러시아 내무국이 전했다.

지난 1월16일 은행 직원이라 사칭하는 익명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금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해서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이 제시한 계좌로 5만 루블리를 이체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은행에서 120만 루블리를 대출하게 하고,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 약속한 후 그가 제시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그녀의 신용카드가 대출 한도가 넘었으며, 자동차 대출이 승인된 것도 발견했다.

피해 여성이 당한 피해액은 약 2백만 루블리에 달해 이 사건을 경찰은 범죄사건으로 기소하여 조사 중이다.

Мошенники выманили у пенсионерки с Сахалина 2 млн рублей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стала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потеряв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6 января потерпевшей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представившийся сотрудником банка, и предложил инвестирова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Женщина перевела 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одиктованный ей счет.

Затем мошенники убедили ее взять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1,2 млн рублей и перевести эти деньги на указанный счет, пообещав большую прибыль. Позже потерпевшая обнаружила, что лимит по ее кредитной карте увеличен, а также одобрен автокреди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женщина лишилась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данному факту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дет следствие.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1+2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